

안녕하세요?

조나단 강야엘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위기 속에서도 감사와 열매가 넘치길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작년 11월에 개척된 타이베이 신애교회는 올 한 해를 도약의 해로 삼아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평균 5일은 설교문을 복사해 130여 명에게 방문하여 일대일로 양육 및 교회 출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2월이 되면 그동안 한 자리 숫자였던 성도가 10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연 말까지 출석교인 70 명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강야엘 선교사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참여하는 성도는 아직 없으나 저희 부부는 매일 1시간 반 동안 타이베이와 신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륙에 있는 제자 교회들도 비록 코로나로 대면예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잘 이기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회사 근무할 때부터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작년 8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매달 신애 교회 임대료에 현금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코 녹록치 않은 새 해에 여러분 교회와 가정마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의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기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3년 1월 16일

조나단 강야엘 선교사 드림.

<기도 제목>

1. 대륙 제자들 교회와 신애 교회 부흥을 위해
2. 일대일 전도로 양육 중인 130 명 영혼들 중 70명(금년 목표)이 출석하도록
3. 가족들 모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도록